

##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분야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평

### 무용 분야

- 일정 및 장소 : 4.27(목)~4.29(토), 창의예술인력센터 실험무대 및 창조관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서령, 김예림, 성재형, 오문자, 최태지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분야는 2011년 ‘창작팩토리’의 발레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분야까지 신설되며 현재 가장 큰 지원규모와 우수작 탄생의 장으로 지속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무용분야는 지난 2월,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총 16단체의 기획안이 무용분야 실연심의 지원작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16개 작품은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실연 제작비를 지원 받았으며, 동일한 무대, 조명, 음향의 조건으로 3차 심의에 참여하였다. 공연예술창작산실에 심의 대상 작품은 공연되지 않은 창작 작품이어야 하며, 올해부터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작품과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관객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구분지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쉽게도 3차 실연심사에는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단위 관객 대상 작품이 선정되지 못했으나 앞으로 무용레퍼토리의 다양화를 위해 이 분야의 우수작이 창작산실 무대를 통해 개발되기를 바란다.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분야의 지원항목과 규모는 실연심사 최대 15백만원, 공연 최대 6천만원으로 지원금은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항은 실연심의에 한해 안무자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사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권고 사항으로 출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료를 반드시 책정/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 창작산실 무용분야 올해의 신작(후보) 실연심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실험무대에서 4월 27일~29일 3일간 이루어졌다. 실험무대는 단체당 80분이 주어졌는데, 이는 프리셋 30분+관객입장10분+실연 20분+관객퇴장 5분+인터뷰/철수15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3일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실연심의에 출품된 작품들은 공연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심의의 일환이므로, 선정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무대, 조명, 음향은 공통된 조건으로 제한되었다. 공연시간은 20분으로 하이라이트 편집, 전막 요약 등 단체 재량에 따라 실연하도록 하였고, 무대는 제공된 검은 색의 공동 댄스플로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사전 협의된 도구 및 소품의 반입은 가능케 했다. 조명은 기본 조명(백색)을 공통으로 제공하였으며, 단체가 조명을 별도로 셋업할 수 없고 명/암전, 영상 사용 시에만 조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음향 역시 기본시설을 지원하였고, 사전 기술 협의된 내용 안에서 마이크, 전자악기 등 가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상이 있는 경우 공동 사용 프로젝터와 백색 호리전트를 사용케 하였다. 심의 대상 단체는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명디자인,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영상디자인) 제출을 필수하도록 했고, 심의위원들은 실연 전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작품계획서와 함께 인터뷰에 참고하였다.

3차 심의 기준은 크게 네 개의 항목이,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채점되었다. 채점 항목은 작품의 수월성 (50%)(계획의 이행수준 (20%) 작품의 발전가능성 (30%)), 제작의 실현 가능성 (30%) (예산 및 일정계획 (10%) 참여인력 (10%) 홍보마케팅 (10%)), 작품의 파급효과 (10%), 관객평가(10%) 로 1,2차 심의와 크게 다른 부분은 관객평가단의 평가 10%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참고 : 1-2차 심의 기준 - 작품의 수월성 (40%), 제작의 실현가능성 (40%), 작품의 파급효과 (20%))

심의는 각 단체별 실연과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심의위원 종합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한 점수를 취합하여 순위와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8개 작품(대극장 4, 소극장 4 작품)을 우수작 공연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작품의 순위와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심의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완성작에 대한 예술성과 제작진의 역량,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작품성과 예산책정, 대중(관객)을 위한 예술 향유 가능성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예술성’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한국의 창작무용을 선도할 수 있는 진보적 시도, 현재 관객의 눈높이를 맞춘 보편적 작품 등 다각적 해석의 ‘예술성’에 폭을 넓혀 그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고답적 창작의 클리셰를 벗어난 창의적 아이디어에 주목했으며, 과거 본 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검토되었다.

실연심의에 참여한 16개 작품들은 완성도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몇몇 작품은 바로 무대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숙련도를 보인 반면 몇몇 작품은 이제 막 구상 단계를 벗어난 정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고정 단원을 두고 있는 단체와 이번 작품을 위해 새롭게 무용수를 캐스팅한 경우, 자체 연습실이나 극장을 확보한 단체와 임시 프로젝트성 그룹, 안무자/출연자가 해외 체류 중 일시 귀국한 경우 등 준비 환경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실연 무대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성도 외에 주제에 대한 리서치 정도, 해석력, 독창성 등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2차 심의에서 우려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작품이나, 짧은 실연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해 과잉 요소들이 작품성을 방해하는 경우, 반대로 20분 이상의 확장이 어려워 보이는 단편적 아이디어의 작품 등은 완성단계로 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1,2차 심의에서 기대를 모았으나 실연

에서 미흡한 경우, 반대로 사전에 미흡했지만 실연으로 만회한 경우는 이전 심의 결과와 다른 순위변동을 낳으며 실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16개 작품들은 대부분 2차 인터뷰 심의에서 밝힌 계획에 충실했고, 일부 음악, 세트 등 작품에 관한 변경과 예산 책정 및 집행의 변경사항은 인터뷰시 질의응답으로 확인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실연심사의 출연자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결산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조정을 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3차 심의의 인터뷰가 2차 인터뷰와 다른 점은 연출자, 기획자, 작곡자 등 스텝이 안무자와 동석했던 것과 달리 안무자 1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작품을 주도해야하는 안무자가 참여스텝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연륜의 차이로 주도권을 잃는 경우를 우려한 것이며, 작품에 대해 안무자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가 합의한 것이다.

모든 실연과 인터뷰 후 심사위원회는 최종심의 단계인 만큼 신중한 토론을 진행했고, 되도록 장르와 세대, 지역 간의 고른 안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수작을 탈락시키면서까지 장르적 균형을 맞추는 것은 창작예술에 대한 시대적 관점과 동떨어진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최대한 배려하되 무리한 장르배정은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별채점 합산 결과 대극장과 소극장 구분 없이 순위가 정해졌고, 전체예산과 극장 확보일수를 고려하여 8개 단체를 선정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극장일수와 선정작품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했는데, 대극장 3작품, 소극장 5작품이 가능하도록 확보된 극장 여건과 달리 심의결과 대극장 4작품, 소극장 4작품이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2주 연속 확보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 2개 작품이 아닌 3개 작품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소극장용 작품들은 순위와 작품 특성에 따라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 예술극장의 소극장 무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예산은 작품규모와 순위, 단체의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수월한 제작환경이 되도록 배정하였다. 대극장과 소극장으로 나누어 일괄 배정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극장이 아닌 작품의 규모와 예상 제작비에 따라 지원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 선정 여부를 떠나 일련의 심의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창작 아이디어가 수면 위로 꺼내지고 가능성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은 본 사업이 갖는 창작 독려와 마중물 역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8개 작품과 그 외 실연 참가작 모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12월, 그 모습을 드러낼 완성작에 선정 안무자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

뒤따라 기대한다.

심의회원 일동